

# 海洋戰略과 太平洋

(NATO와 相關關係를 中心으로)

少領 文 奉 根 譯

註

이 글은 저자 Dr. Colin S. Gray가 Naval War College Review (Winter, 1987)紙에 “Maritime Strategy and the Pacific: The Implications for NATO”란 제목으로 게재된 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글은 가까운 시일내 혹은 먼 장래에, 평시에 또는 우리의 전쟁 억제 노력이 실패하여 전쟁에 직면했을 때, 태평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태의 변화가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다분히 전략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장차 적용에 있어서는 확실한 면도 있고 불확실한 면도 있으며, 실현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국가 안보정책에 대한 토론이나 동맹국 및 미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열면 토론들 조차도 몇몇의 인사들에 의해 지엽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실리만이 주장되거나 또는 현재 대두되

---

<名言> 戰略은 戰爭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戰鬪를 실시하는 兵學이다.

— 클라우제비츠 —

고 있는 분야에만 모든 촛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도외시되어 토론의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 나토의 중부전선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에 대한 많은 이론(異論)이 있다. 중부유럽에 대한 소련의 공격은 결국 전세계 해양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너무 성급한 주의를 끌고 있다. 중부전선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소련으로서는 유럽에서의 어떠한 전쟁도 북, 서, 남 및 멀리 극동지역까지 포함하여 그들의 해양축방을 노출시킨다는 사실을 소련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1980년대 미국 및 주변 동맹국들과 통합된 노력의 일환으로 체계화된 해양전략은 유라시아의 광범한 지형을 고려해 볼 때, 대부분이 육지로 둘러싸인 소련에 대하여 연합국들의 막강한 해양력을 이용하여 기동성과 융통성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반대론자들과 혹은 일부 상기 이론의 지지자들 중에서도 노르웨이해에서 전투가 발발하면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또는 노르웨이해에서 단기전쟁으로 얻은 성공이 어느정도 가치가 있는가? 등에 대한 비판들이 많다. 적합한 토론대상 선정에도 문제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토론대상에서 빠지지 않고 토의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국가정책에 바탕을 두고 제병과 협동으로 어떠한 환경하에서도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진부한 표현일지는 모르나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전략에 대한 토론이 남의 의견을 경시하고 자신들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인사들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J. C. Wylie 제독은 20년 전에 “군사전략”이란 연구서에서 “본인은 전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지협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한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전략연구 소분과위에서는 소련이 SS-18 (혹은 SS-10, SS-14)에 몇개의 탄두를 부착할 수 있느냐? 혹은 SDI와 SDI Skiy의 정확한 차이는 무엇인가? 또는 소련과 미국이 어느정도의 군사력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에 대해 알가왈부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 핵무기의 균형과 소규모 국지분쟁에 대한 깊은 연구는 빈약한 실정이다. 중부전선 소분과위에서는 여러가지 가능성 있는 군사행동을 구상하고 있다. 즉, 역습으로 소련의 위성국을 점령, 그들을 소련의 통치에서 해방시키고 위성국들로 하여금 반란을 총동질시켜 1914년 초겨울처럼 교착상태를 구상해보기도 하고 기동전을 생각해보기도 한다(물론 독일 군대가 Volga에서 베를린까지 기동방어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도 있지만).

중부전선 방어를 구상하는 계획작성자들은 유럽에서 핵무기 사용이 아닌, 재래식 전쟁에 관해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장거리 핵공격이 가능한 항공병기와 나토의 해양력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역시 최대의 관심은 중부전선으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물론도 과연 "NATO 군은 소련의 지상군과 전술항공에 의한 전격전을 격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 "만약 NATO 군이 중부전선에서 성공한다면 그 다음 할일은 무엇인가? 또는 NATO 군이 유럽의 지상전투에서 패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풍조가 있다.

이 글의 또 다른 목적은 "소련이 유럽 한 지역에서만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그들의 판단이 유럽에서의 전쟁억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만약 소련이 나토에 대하여 1940년대 독일이 사용했던 만슈타인 계획과 같은 공격을 감행한다면 연합국은 가용한 자원과 전쟁수행 의지로 지연전을 수행하여 유럽반도에서 소련의 부분적인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해양력은 그 자체만을 위해 운용되는 것이 아니며 바다는 어느 한 국가의 독무대가 될 수 없다. Wylie 제독은 해양이론을 "두종류로

구분하고 그중 하나는 바다를 통제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바다를 통제함으로써 육상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해군의 이론가와 계획자들은 지상세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적에 대하여 전쟁억제와 방어를 위해서는 단순히 해상에서의 전투만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연합국의 해상세력을 통합하여 해상병참선 통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해양전략에 대한 지속적이고 혹심한 비평은—작금의 세대에 대형 항공모함의 생존가능성 여부에 대한 것은 제외하더라도—해양력과 지상세력의 상호관계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해양력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전략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만약 나토가 미국 해군의 힘을 이용하여 우리의 주도하에 전쟁을 수행하려고 한다면—예를 들면 극동 아시아에서—해상/항공부대는 소련이 우리의 해상병참선을 차단못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미국의 우방국가와 그들의 영토가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982년 알프레드 마한은 해군대학에서 “전세계가 알고 있듯이 우리는 지금 새로운 해군을 건설하고 있다. 이 일이 끝나게 되면 새롭게 탄생한 해군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말하였다. 논리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만약 서구의 연합국들이 전략적으로 중요 해역에 대해 통제를 한다고 가정할 때 막강한 지상세력을 가진 소련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 I.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본 태평양

태평양은 나토에게 아주 도외시될 수 없는 지역이지만 통상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 주로 지리적인 이유에서 미국은 태평양지역에서 식민지 쟁탈전이 한창 절정인 때에도 소련과 유럽의 열강을 따돌리고 세력을 유지해 왔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많은 이익을 보고 있으며 지금까지 많은 아시아국가들로부터 고유의

문화적 배경을 갖고 미국으로 이민하여 왔다. 이러한 이민정책의 효과로 미국은 현재까지도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차대전시 연합국 대전략의 본질은 “독일 타도만이 최선의 방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영국 정부는 미국이 제한된 전쟁물자를 유럽지역에서 태평양지역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정치적 공세를 가하였던 것이다. 태평양에서의 전쟁은 사실상 미국의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태평양전쟁에서 전략과 전쟁 자원에 대한 운용문제로 상충된 의견과 그에 대한 토론은 국가간의 문제가 아닌 미 해군과 미 육군간의 문제였다. 다행히도 일본의 육/해군은 미국의 육/해군에 비하여 협조면에서 더욱더 같등이 심했다.

태평양을 지향하는 미 해군의 입장과 유럽위주로 작전을 구상하는 미 육군의 견해차는 오늘날까지 그 잔재가 남아 있으나 두 견해 모두 국가 군사전략면에서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육/해군의 상이한 견해는 어떤 결정적인 기회이용이나 중요문제를 빠뜨리지 않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으나 전쟁억제와 방지의 입장에서 동-서로 엇갈린 우선권 주장으로 힘을 한곳에 집중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는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나토지역 방위와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억제를 위한 전략적인 상관관계를 작전적인 측면에서 알아보기 전에 태평양지역에 대해 기본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실을 안다는 것은 중요하다. 세계경제의 관심과 세력판도(아마도 결국은 군사적, 정치적인 면이지만)의 중심이 태평양의 동아시아 주변국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가지 명백한 이유로 미국과 유럽의 나토 전략연구가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관심을 유럽대륙과 유럽해역에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유럽지역에서 실제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위협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의 안전보장에 관한 관심도는 1950년대 초반 이래로 동아시아로 옮겨져 오고 있다.

일본 수상 나카소네는 그 연설에서,

“문명은 이동할 때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면서, 점진적으로 주변 (Periphery)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역사는 가르치고 있다. 번영하는 문명은 끊임없이 새로운 개척지로 향하여 이동해 왔다. 즉, 그리스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영국·불란서 및 독일로 그리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하였다. 미국 자체내에서도 문명의 횡불은 대서양에서 태평양 연안쪽으로 서향 전진하였다. 역사의 나침반 바늘은 지중해로부터 대서양 문명으로 편기했다. 이제 그 바늘이 태평양쪽을 가르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한 북반구와 남반구 양쪽의 태평양 연안을 포함하는 새로운 경제적, 문화적 영역에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태평양은 인간의 상호작용과 발전의 드라마를 위한 새롭고 역사적인 무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는 매우 설득력이 있고 그럴듯한 발언이다. 그러나 여지껏 지속되어온 경제역학적인 면과 역사에 나타난 부(富)와 힘의 관계를 살펴볼 때 현재의 추세는 국제안보 질서유지면에서 아시아 특히, 동북아는 지정학적인 면이나 지형전략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새로운 변화의 초기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추세는 대서양을 연한 유럽과 미국이 쇠퇴하면서 동아시아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금세기 말에 가서 서태평양 국가들이 세계 총생산량의 25%를 점유할 것이며 일본의 GNP는 소련과 중국의 GNP 규모에 급속도로 접근하여 15~20년 후에는 현재의 소련 GNP와 동등할 것이다.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무역량은 1973년~1974년간 420억불에 불과하였으나 10년 후에는 1,700억불까지 상승하였다. 1987년의 연례보고서에서 캐스퍼 와인버그 미 국방장관은 미국무역의 35%를 동아시아와 거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경제적으로 현재 동아시아는 미국에게 서부 유럽보다 더욱 중요하며 이러한 추세는 중공의 현대화와 더불어 지속되고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안보문제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그에 대한 대책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안보적으로 일본의 부(富)는 잠재적인 방어역량이 될 수 있으나 방위비 지출을 1%로 국한시킴으로써 정치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중공도 부(富)의 잠재적 역량으로 4대 현대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위산업 우선순위는 최하위에 놓고 있다. 비록 추세가 미비하여 언제 어떻게라고 단언할 순 없지만 동아시아는 세계 힘의 유력한 중심이 될 것이다. 이 지역에 대한 안보구조와 동아시아의 지형전략적인 중요성은 중공이 현대화되어 가고 있고 일본이 이러한 추세에 편승하면서 더욱 변화될 것이다. 태평양의 지리적인 특성은 안보문제와 동아시아 발전에 지배적인 요소이다. 태평양은 적도를 따라 10,000 마일에 걸쳐 있으며 남북으로 8,000 마일의 거리이다.

현재 동아시아의 경제대국인 일본은 금세기 전반에 영국이 독일 해군에 대해 행한 것과 같이 동아시아에서 소련 해군세력의 주력을 봉쇄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소련의 해양세력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소야해협(훗카이도와 사할린), 쓰가루해협(훗카이도와 혼슈) 또는 쓰시마해협(혼슈와 한국)을 통과하여야만 한다.

소야(라페로우스)해협을 통과하게 되면 소련은 해군력을 오토츠크해로 투사할 수 있으며, 또한 공해상으로의 진입을 위해 쿠릴열도를 통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캄차카반도의 소련 해군기지인 페트로파블로프스크는 연중 수개월간의 결빙상태로 완전히 고립되는 불리점을 안고 있다.

이곳은 가장 가까운 철도로부터 천마일 이상 떨어져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시베리아와 태평양에서의 소련의 위치는 중공에게 측방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또한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포함하여 일본에 기지를 둔 미국의 중공 및 해양세력으로부터 봉쇄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소련은 남지나해의 캄란만과 다낭에 주요기지를 건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봉쇄된 상황에서

태평양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많은 제한점을 무릅쓰고 페트로파블로프스크의 개발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소련은 이란과 파키스탄에서의 호조건과 인도와의 우호적인 전략적 관계를 이용하여 아프가니스탄을 경유, 아라비아해와 인도양까지 그들의 세력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지리학은 지정학과 동일하지는 않다. 지리학은 어느 국가나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전략적 가능성만을 제시해주는 천연자원에 불과한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소련의 위치는 매우 불안한 것으로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우랄동편의 모든 소련영토는 19세기 불평등조약에 대한 보상과 보복을 염원하는 중공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소련의 해군력은 일본의 지리적인 봉쇄역량으로 인하여 연안지역에만 국한되어 있고, 대양에 접한 소련의 항구는 연중 수개월간 결빙으로 봉쇄되어 있으며 군수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반면, 단하나뿐인 월남내의 부동항은 중공의 지리적 위치와 미 해군 항공력에 의하여 병력증원이나 군수지원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이 외견상으로 보이는 것과는 똑같지 않다. 일본이 단지 지리적인 조건만으로 일본 근해에서 소련의 해군력 봉쇄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미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일본의 영토, 바다, 하늘을 사용하게끔 허락하거나 또는 자체 방위를 위해서 일본 스스로의 군사적 확장을 시도함으로써 봉쇄가 가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소련에게는 중공문제가 방어계획 수립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매우 다를 수도 있다.

미국은 세계대전 발발시 중공이 미국의 맹방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지정학적 취약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어려움은 그것이 지닌 내재적 의미와는 대조적으로 정확한 의미는 정치-군사적 맥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동구권의 군대는 소련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있으나, 2주내에 종결짓는 소련의 성공적인 전격전에 의해 불가능할 것이다. 소련과의

광대한 국경지역에서 어느정도의 위협적인 군사행동으로 소련의 군사력과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이 승리할 것이라고 판단될 때 중공은 국경지대에서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 II. 소련의 태평양 정책과 욕망

최근 *The National Interest* 지 기사에서 해군대학의 Alvin Bernstein 교수는 소련의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군사정책과 군사력배치 추세에 대하여 다소 비관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다. 그는 캄란만의 새로운 소련 해군 및 공군기지 (1979년 브레지네프가 카터에게 소련이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는 동아시아에서 봉쇄된 그들의 탈피수단으로 인도네시아를 경유하는 일본 해상수송로의 측방을 위협하고 인도양에서 소련 해군의 전쟁 지속력을 증가시키며 필리핀의 미군기지에 대해 결정적 견제역할을 하고 소련의 세력범위를 호주에까지 확장시키며 중공으로 하여금 그들이 취약하다는 것을 인식토록 하고 위기와 전시에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해양력 사용에 대해 주요 저항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소련은 아시아에서 무엇이며, 그들이 원하는 최대 및 최소 정책목표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유럽에서의 전쟁억제 및 방어를 위한 나토의 목표와 세계를 무대로 하여 소련과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의 목표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소련이 그들 안보적인 관점에서 본 아시아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소련의 정책은 공격과 방어의 양면성에 의하여 수립될 것이다.

첫째, 소련은 미국처럼 아시아에서 세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토가 실제로 아시아에 발을 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영토의 2/3 이상이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중 1/3이 바이칼 호 넘어 동쪽에 위치하여 인종학적으로 볼 때 오천만 이상이 아시아 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소련의 장차 경제는 우랄 동쪽지역에 의존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시 말해서 우랄의 극동쪽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은 광대한 거리와 기후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과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시베리아에는 무진장한 천연자원이 방치되어 있으며 이는 급속히 세계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문턱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리 에 위치하고 있다.

세째, 소련은 태평양에서의 강자가 안되고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열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소련은 공격과 방어를 놓고 볼 때 그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주변국가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네째, 소련은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로 방대한 군사력의 현대화를 포함하여 중공이 현대화가 되었을 때 동아시아를 위요한 세력판도는 상당히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더우기 중공도 일본에 대해서 현재 미국처럼 일본의 안보를 책임지겠다고 나설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가정이 현실화 된다면 동북아시아의 안보구조는 향후 50년내에 기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정책입안자들은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경제와 집단 안전보장을 이유로 중공과 일본이 가까운 장래에 서로 밀착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국에게도 달갑지 않은 것이지만 영토를 점하고 있는 소련에게는 더욱더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굳이 마한이나 맥킨티의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동아시아에서 소련과 미국만이 선두주자로 달리기에는 이미 때가 지났다고 볼 수 있다. 중공의 외교적 역할은 비록 미약하나마 미국과 나토의 견지에서 볼 때 대단히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역할은 중공에게 중요하며 중공은 과거에 잃었던 영토를 되찾고자 한다. 지금은 비록 힘이 약한 중공이지만

과거 월남에 대한 보복적인 침략을 상기하여 볼 때, 경제력이 뒷받침되어 현대화로 재무장하면 중공은 새로운 실력자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일본인들은 대양을 건너 멀리 있는 미국보다는 지역 강대세력인 중공의 정치적 관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다섯째, 독일은 2차대전시 2개 이상의 전선에서 전쟁을 치루어야 했기 때문에 금세기 전쟁에서 두번다 패하였던 것이다. 소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1941년 일본과의 불가침조약 체결과 연합국 해군이 1944년 중반기까지 독일 육군 야전사단의 42%를 교착 견제함으로써 소련군에게 많은 장비와 식량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소련의 주요한 적은 현재 동북아시아에 기반잡고 있는 미 해군력으로 소련은 원하든 원치않든간에 태평양지역에서 싸워야 한다고 믿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소련이 추구하는 최소 목표는 바이칼에서 아무르에 이르는 철도를 보급선으로 유지하는 한편, 미국과 그 지지국가들간의 안보협력을 저하시키는 것이고, 평시 최대목표는 주변국가들을 협박 혹은 회유하여 자국과 정치 및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미국이 지역내 여타 국가들과 맺고 있는 공식/비공식인 군사협력 관계를 철회시키는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쿠릴열도 남단의 영토(과거 일본이 잃어버렸던)를 둘러싼 일본과의 마찰과 베트남이 제국주의적인 정치를 하도록 방치한 일들이 지금의 소련 정치노선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다.

## Ⅱ. 전략적인 면에서 본 유럽과 태평양

1960년대 중반부터 급성장한 소련의 동아시아 군사력 증강은 최초 1965년부터 1977년까지는 중공과의 국경지역에 지향되었으나, 1978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에서의 영향권을 밖으로 확대시켜

왔다. 이것은 소련이 태평양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결론으로 장차 전을 위한 포석으로도 사료된다. 소련의 군사정책은 험사리 유럽만을 지향할 수 없으며, 평시나 위기시에 위협과 협박으로 항상 강력한 제국주의적인 안보의 길을 모색해 오고 있다(위성국에 대한 SS-20 배치).

극단적으로 이러한 사실은 소련이 전쟁을 치루게 될 때에 재래식 전쟁에서 신속히 승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소련의 핵무기 역할은 잠재적인 어떤 규모의 전쟁상태하에서도 연합국의 전쟁억제 노력에 제동역할을 할 것이다. 그들은 서방측이 전시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바라고 있다.

그러나 동서간에 핵전쟁이 안 일어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소련 지도자들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다. 소련이 전쟁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추세로, 혹시 사용할지도 모르지만, 나토는 재래식 전쟁에 대비하여 그것을 억제하기 위한 장단점을 분석해야 한다. 소련은 전통적으로나 문화배경을 볼 때 대륙국가지만(때로는 망각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망각하지는 않음) 그들의 잠재적인 적은, 지정학적 필요에 따라 주요 유럽국가의 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해상세력을 가진 강대국(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유럽에 초점을 둔 군사동맹국들로, 이 지역 군사동맹국들간의 관계는 아시아지역에서의 동맹국들간의 안보협력 관계보다는 다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소련은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과의 전쟁에서 좋은 군사적인 경험을 하였다. 2차대전시 소련의 용진분투로 대패한 독일은 발틱으로부터 흑해까지만을 위협하였으나 장비부족 특히, 차량장비가 부족하였고 연합국의 제해/제공권 장악으로부터 북쪽 Festung Europa 지역 방어를 위해 그나마 빈약한 자원을 전용하면서 서부와 남부 및 Reich에 대한 대공방어를 시도하였으나 빈약한 동맹국들의 작전실패와 현실과 동떨어진 히틀러의 지휘로 파국의 길을 걸었다.

소련의 일반 참모부에서는 2차대전시 그들의 업적을 만족해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과거 그들이 싸웠던 적과는 다르다는 사실로 소련은 장차 전쟁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계속적인 핵 무기의 생산은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

- 지금의 적은 과거 독일과는 달리 전쟁 발발시 연합체제의 구축으로 소련의 경제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방어시 연합국의 동원 잠재능력).

- 소련은 그 위성국들을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

- 현재 그들의 적은 어떠한 환경하에서도 운용될 수 있는 막강한 해상세력을 가지고 소련으로 하여금 세계 여러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토록 강요할 수 있다는 점.

유럽지역이 전쟁에 처하여 다소의 피해를 보았다고 해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태평양지역에서 소련에 대한 강력한 군사행동이 서구 연합국들로 하여금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본인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서부유럽이 소련의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여 미국과 연합국들이 그 계획대로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전략은 방자가 유사시 동원령을 선포하여 지속적인 방어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역량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제한된 시간내에 적에게 최대한 출혈을 강요하면서 지연시킬 수 있어야 하며, 전투의 영역을 지리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전략의 필수조건은 첫째로, 핵전쟁 억제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둘째, 단기간내 전쟁을 종결시키려는 소련의 전격전에 대한 나토의 대비책이다.

아시아지역에서 소련의 군사력 증강 즉, 52개사단, 태평양함대 증강 (1965년 이래 두배로 증강하였음), 1978년의 극동지역사령부 창설

및 핵무기 배치 등은 평화시나 위기시나 그들의 외교노선을 추구해 나가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장차전은 비핵전쟁으로 장기화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소련은 그들의 군사력을 증강하였다고 판단된다. 장차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유럽에서 시작될 것이다.

소련은 이 지역에서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동아시아의 열강들을 최소한 중립화 시켜서 소련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를 못하도록 여러가지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소련이 태평양지역에서 미국과 일전을 시도할 때 자신들이 어느정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각오를 해야 한다. 소련은 그들의 극동사령부만이 이 일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소련은 극동지역에 보낼 준비된 군사지원도 없거니와 제 보급품이나 증원군을 보낼 확실한 수송수단도 항공기를 제외하고는 없다.

나토를 지원하기 위한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전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 과거 그들이 2차대전시(1941년 11월) 사용한 것과 같이 시베리아 지역의 병력을 서부전선으로 전용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
- 중공으로 하여금 중립을 지키지 않고 소련에 대해 군사행동을 취하도록 종용해야 한다.
- 일본으로 하여금 소련의 위협에 대항토록 하고 자위대를 증강시키도록 요구해야 한다.
- 일본경제를 봉쇄하기 위한 소련의 해상, 항공활동을 막아야 한다
- 태평양 전역에서 소련의 힘을 약화시켜 이것을 이용하여 유럽지역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종결짓는 것 등이다.

#### IV. 결 론

중공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는 아시아의 새로운 안보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경제력을 유지할 것이다. 안보적 차원에서 볼 때 일본은 미국에서 차츰

떨어져 나가 중공쪽으로 밀착될 것이며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은 점차로 감소될 것이다.

중공과 일본의 연합체제가 형성되면 동아시아에서 오늘날 미국과 그들 국가들이 그러했듯이 소련 “헤게모니”의 대항세력으로 부상할 것이다. 더우기 고전적인 힘의 역학적 균형을 볼 때 동아시아에서 부각되는 강대국이나 유럽의 나토국가들도 마찬가지로 힘의 형평에서 밀려나 남 잘되기를 바라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현재와 앞으로 수십년내 미국과 나토가 그들의 핵무기에 과대 의존하는 습성은 바꾸어져야 한다. 중부유럽에서 단기전쟁이 발발하여 패배를 당한다고 가정할 때 미국이 세계대전 방지책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여 전세계를 종말로 몰고갈 것이라는 식으로 구주 동맹국들에게 어리석은 언질을 주어서는 안 된다.

반면에 조금 낮은 감은 있지만 나토는 핵무기에 대한 힘의 균형문제를 놓고 볼 때 과거 20년동안 그들에게 불리하게 조성된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하며 소련의 (과거 독일의 슐리펜계획 같은) 비핵공격을 저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힘을 길러야 한다.

소련은 만약 그들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자멸을 초래한다는 사실과 유럽에서 속전속결을 시도하더라도 승리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으며, 막강한 해상세력을 바탕으로한 연합군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전쟁을 수행해야 하고 거대한 경제력이 뒷받침하고 있는 나라들과 세계 여러곳에서 동시 전쟁을 치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필자의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면 과연 소련은 어떠한 반대이론을 제시할 것인가?